

## 최성각 소설의 타자의식과 생태주의적 특성 연구

이 미 림\*

### 차 례

- |                            |                       |
|----------------------------|-----------------------|
| 1. 머리말                     | 3. 자연과 인간과의 공존 및 생태의식 |
| 2. 사회적 약자의 고통과 타자의 목<br>소리 | 4. 맺음말                |

### 국문초록

본고는 생태주의를 지향하는 포스트휴머니즘 시대에 녹색문학을 일관되게 발표하며 종을 초월하는 탈인간중심주의적 세계관을 주창한 최성각 소설을 고찰하였다. 작가란 어떤 경우에도 당하는 자의 편에 서야 한다는 그의 문학은 여성노인, 이주노동자, 아시아인, 빨치산, 동물과의 공감과 연대를 보인다. 『진또배기 그늘』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가난’, ‘여성’, ‘할머니’, ‘원주민’이라는 타자성을 지닌 노파들이 여귀가 되어 의미화되지 않은 초월적인 언어적 기표인 바람소리, 파도소리, 모래소리로 한과 슬픔을 전달하는 주술적이고 영험한 삶의 비의를 드러낸다. 『밤의

\*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짜이 왕, 에스비 구룡』과 『독방에 감금되었던 히말라야 여인』에서는 빈국(貧國) 출신의 네팔인이 인권유린, 여성혐오, 인종차별을 당하며 윤리적 명령을 요구하는 타자의 얼굴로 다가온다. 『부용산』에서는 공동체 내부의 바깥에 위치한 빨치산의 삶을 통해 목소리를 갖지 못한 타자들의 존재를 복원한다. 능욕과 고통의 대상인 자연과 동식물, 무기물까지 타자의식을 보이는 최성각 문학은 자연훼손과 환경오염을 주제로 한 생태주의적 특징을 지닌다. 실명(實名)과 구체적인 자료와 통계를 바탕으로 다큐적이고 사실적으로 현실을 고발하는 그의 소설은 『진또배기 그늘』의 남대천 오염을 직시하거나 『약사여래는 오지 않는다』에서 자연과 인간과의 단절을 그린다. 『강을 위한 미사』, 『동강은 황새여울을 안고 흐른다』에서는 영월 동강댐 건설 반대를 소재로 강을 가두고 역류시키는 부자연스러운 환경변화에 의해 생명의 위기와 동식물 생태계 파괴, 수질 오염 등의 문제점을 진단한다. 『거위, 맞다와 무답이』에서는 동물이 주는 따뜻함과 아름다움과 배려에 공감하며 평등주의를 드러낸다. 불교의 연기와 자비의 생태학, 천주교의 생명사상, 도교의 탈인간중심주의와 유기체적 생명철학 등 종교를 초월한 생태의식에 바탕을 둔 최성각 문학은 휴머니즘의 한계를 극복하고 모두가 상생하는 주제의식을 지녔기에 동시대적 의미를 지닌다.

주제어 : 최성각, 녹색문학, 타자의식, 생태주의, 포스트휴먼, 에코토피아, 에코에티카

## 1. 머리말

강원도 강릉 출신의 최성각(1955~)은 소설가이기 전에 환경운동가로 알려져 있다. 서울 상계동 쓰레기소각장, 영월 동강댐 건설 및 새만금 간

척사업 반대 등 환경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언제나 그 시위현장에 있었기에 이러한 이력은 작가로서보다는 행동하는 운동가로 인식되었다. 『달려라 냇물아』(녹색평론사, 2007), 『날아라 새들아』(산책자, 2009) 등의 에세이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강을 호수로 만들거나 바다나 갯벌을 막아 매립지나 간척지를 조성함으로써 자연에 역행하고 생태균을 파괴하는 인간중심주의적 세계관과 모든 대상물을 이용과 착취로 여기는 과학기술과 서구의 이분법적 사유에 저항한다. 자연과 동식물, 무생물에 게조차 타자의식을 요구하는 작가는 2003년 풀꽃평화연구소를 개설해 새, 돌맹이, 풀, 골목길, 꽃, 자전거, 지렁이에게 환경상을 수여하는 등 탈인간중심주의적인 세상을 추구하며 인간과 지구의 다른 거주자들과의 연대와 책임의식을 주창한다. 이 세상의 삼라만상이 서로 조건이 되고 영향을 주고받는 에코시스템<sup>1)</sup>의 한 부분일 따름이므로 모든 만물은 평등하고 자연을 마음대로 착취하고 개발할 권리는 없다는 것이다.

최근 근대의 대표적 가치인 휴머니즘에 대한 반성과 성찰로서 포스트 휴머니즘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인간과 비인간을 재정립하고, 과학기술과 정보기술의 발달로 기계와 결합되어 증강된 새로운 형태의 인간이 탄생하면서 AI와의 경계가 흐릿해졌고 정체성에 대한 철학적 질문이 이루어졌다. 어떠한 개체도 자연을 지배하거나 정복할 권리를 갖지 않으므로 생물다양성, 타자지향성을 촉구하며 인간중심적 사고가 아니라 생명중심적 사고가 요구되는 현실에 직면한 것이다. 근대국민국가의 노동착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불평등, 자원의 불공정한 배분에 따른 사회적 부정의 등 인간계를 넘어서 자연 생태계의 생물과 무생물에 대한 파괴와 착취는 신자유주의 지구화의 이윤과 부의 생산극대화를 위한 자연환경

1) 러브록은 지구의 항상성을 유지시키는 지구 규모의 거대한 조절시스템과 범지구적 협력을 내세우며, 지난 수십억 년 동안 지구대기권 원소와 해양의 염분 농도 등이 일정하게 유지했고 구성원소들이 대륙과 해양을 오가며 순환하는 점을 두어 살아있는 생명체로서의 지구를 증명한다. - 제임스 러브록, 홍욱희 역, 『가이아』, 갈라파고스, 2004, 295쪽.

파괴로 세계위험사회(global risk society)를 출현<sup>2)</sup>시켰다. 초연결 초융합 초감각 시대에 결국 생태주의 복원이라는 측면에서 환경과 파괴와 생태 위기를 지속적으로 주제화하고 주류담론에 대항하는 실천담론으로서의 환경담론을 주장한 최성각의 문학을 고찰하고자 한다.

1986년 신춘문에 당선을 통해 문단활동을 시작한 최성각은 여러 편의 소설집과 에세이를 발표한 중견소설가임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에세이류의 소설이나 엽편소설(葉編小說) 등 정통소설장르를 해체하는 문학형식<sup>3)</sup>과 작가 자신인 ‘석우’라는 인물을 주인공으로 하는 그의 문학은 실존인물이 실명으로 등장<sup>4)</sup>함으로써 허구와 역사, 상상과 사실, 팩트와 픽션의 경계를 넘어서는 문학장르를 실험하며 생태정치학적 에코문학을 지향한다. 최성각 문학은 생태에세이 위주로 연구되어 본격적인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

김윤선은 『날아라 새들아』, 『거위, 맞다와 무답이』를 대상으로 녹색성장 시대를 거스르는 긴급한 비판적 글쓰기로서 반생명적이고 반생태적인 한국의 녹색성장에 대한 저항<sup>5)</sup>으로 해석했다. 이는 최성각 문학의 본질을 잘 설명하고 있지만 소설작품을 연구대상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박미경은 당대 현실의 문학적 반응으로서 신변잡기

2) 조명래, 『지구화, 되돌아보기와 넘어서기』, 환경과생명, 2009, 116-117쪽.

3) 그의 소설은 엽편소설(강물은 흘러야하고 깃털에는 깃털들 넘쳐야, 사막의 우물 파는 인부, 말의 감옥), 천주교 미사형식(강을 위한 미사), 서간체 형식(동강에서 온 편지, 섬으로 돌아간 검은 들), 뉴스 및 르포르타주(그린피스 로버트 카멜), 인터넷 댓글 활용(도롱뇽은 어디 있을까), 페러디나 판타지(풀꽃나라 이야기) 형식 등 생태의식을 일깨우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하고 실험적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4) 정치가로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과 고건 국무총리, 박원순 서울시장, 종교가는 문정현, 문규현 신부, 도법, 스경, 법륜, 지울 스님이, 작가 및 학자, 교수로는 신경림, 고은, 김지하, 이문재, 백낙청, 유종호, 리영희, 도갑수, 김동길, 환경운동가로는 최열 등이 실명으로 거론되고 있다.

5) 김윤선, 『녹색 성장 시대, 새로운 글쓰기: 최성각의 생태문학을 중심으로』, 『문학과 환경』제9권, 문학과환경학회, 2010, 109-110쪽.

에 머물고 있는 에세이를 생태문학의 장으로 이끈 최성각 생태문학의 주제는 세상의 고통에 우리 모두의 책임이 있다는 참회의 마음으로 요약되며, 말 못하는 생명의 통증을 같이 느끼는 감수성, 즉 녹색 감수성의 회복이란 심층 생태학의 자아실현<sup>6)</sup>으로 본다. 이 논문 역시 에세이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손민달은 윤구병, 송명규, 최성각의 생태수필을 대상으로 생태과피 정책과 잘못된 절차를 유려하거나 아름다운 언어가 아니라 진솔하고 구체화된 언어로 표현<sup>7)</sup>했다고 평가한다. 이와 같이 생태수필 위주로 분석되고 있어 소설가로서의 본격적인 연구는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지구 대멸종, 후기자본주의, 온난화와 기후변화 등 포스트휴먼 담론 속에서 다양한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회복이 요구되고, 만물의 영장, 지구의 중심이자 최상위 포식자인 인간중심적 삶의 한계가 다다른 인류세<sup>8)</sup>를 맞이하고 있다. 결국 동식물, 바이러스, 자연, AI와의 공존은 개방성과 다문화성에 기반한 다양한 존재 양식을 인정하는 생태주의적 사유에 이르게 한다. 브라이도티는 이성과 합리성으로 무장하고 자기 자신의 완벽함을 향해 무한히 확장할 수 있는 ‘백인 남성 즉 비트루비우스적 인간’의 기준속에서 성차화된 타자인 여성, 인종화된 타자인 비백인과 식민지인, 자연화된 타자인 동물, 지구, 자연들은 인간 이하의 지위로 격하되어 쓰다버릴 수 있는 인간 신체가 되었다고<sup>9)</sup> 비판하였다.

사이드는 유럽중심주의와 제국이 경험적으로 ‘휴머니즘’을 오용했기에

6) 박미경, 『생태위기와 문학의 대응 양상: 최성각의 생태문학을 중심으로』,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2013, 47-48쪽.

7) 손민달, 『한국 생태수필의 가능성과 그 양상』, 『문학과 환경』제14권, 문학과환경학회, 2015, 83쪽.

8) 人類世, Anthropocene, 파울 크뤼천이 명명한 용어로, 인류세는 지난 1만년동안 지구의 기후가 매우 온화하고 안정적이었던 홀로세의 뒤를 잇는 시대이자 생태계 교란을 뛰어넘어 지구시스템의 균열을 인식하는 지적 도약을 포착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9) 이경란, 『로지 브라이도티, 포스트휴먼』, 커뮤니케이션북스, 2017, 3-4쪽, 24쪽.

다른 종류의 휴머니즘, 세계시민적, 망명적, 탈영토적, 집이 없는 현재의 흐름과 부상하는 목소리에 조용하는 새로운 휴머니즘을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다고<sup>10)</sup> 말한다. 최성각은 자신의 문학관과 환경운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피력하고 있다.

저는 무엇보다도 제가 작가이기 때문에 환경운동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문학이 찬탄의 대상이던 시절, 그런 시절의 문학이 제게 가르쳐 준 것은 어떤 경우라도 작가는 당하는 자의 편에 서야 하고, 진실을 묵살하고 이익을 얻으려는 자들의 폭력에 저항하고 그들이 감추려는 진실을 드러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신자유주의의 세계지배 속에서 또하나의 식민지 주민으로 전락한 민중도 여전히 사회적 약자이지만 오늘 말없이 능욕을 당하는 대상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연’이고, 자연에 폭력을 일삼는 힘은 지금보다 더 풍요롭게 살아야 한다고 부추기는 주류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sup>11)</sup>

오늘날 도덕은 전면적으로 파탄 나고 총체적으로 붕괴되었다. 그렇지만 많은 시대가 없었지만 모든 시대에는 ‘다른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었다. 하지만 산업사회 이후, 더 정확히는 체르노빌, 후쿠시마 이후에도 인류에게 희망은 남아있을까? 인간이 인간이기 위해 마땅히 필요한 위기의식이 실종된 땅에서도 문학이 가능할 수 있을까? 도덕의 파탄과 붕괴 속에서 불가피하고 당연한 일이지만, 문학도 지리멸렬해지고 풀이 죽었다. 산업 사회 이후 총체적 도덕의 파탄을 응시하고 괴로워하지 않으면서 생산된 문학도 과연 문학일까? 문학의 파탄은 윤리와 위기의식, 죄의식의 실종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sup>12)</sup>

최성각은 사회적 약자와 자연을 향한 연민과 사랑 그리고 문학적 가치가 소멸된 시대의 문학적 소명을 윤리의식과 연계해서 피력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시대의 윤리파탄과 환경파괴를 진단한 작가는 문학의 사명

10) 위의 책, 31쪽.

11) 최성각, 『책 머리에』, 『달려라 냇물아』, 녹색평론사, 2007, 6-7쪽.

12) 최성각, 『작가의 말』, 『쫓기는 새』, 실천문학사, 2013, 9-10쪽.

이란 타자의 고통과 상처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라고 표명한다. 오토 피아<sup>13)</sup>로서의 에코토피아<sup>14)</sup>를 꿈꾸는 그는 인간중심의 국민국가를 넘어서는 생태민주주의와 사물평등주의에 입각한 공생의 원리, 지역자율성, 환경다양성 등에 초점을 둔 근본생태 혹은 심층생태학<sup>15)</sup> 내세우는 문학작품을 써왔다.

본고는 지나친 에너지 낭비로 인해 온난화가 가속되면서 홀로세적 평형에서 벗어나 환경재난을 질주하고 있는<sup>16)</sup> 지구와 생태계의 현실에서 최성각의 생태의식과 타자의식이 작품 속에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를 고찰한다. 고도 기술사회 속에서 윤리 없는 인간사회가 형성된 시점에서 인류의 생식권의 차원에서 생각하는 에코에티카는 대인윤리에 한정하지 않고 대물윤리까지 포함하는 윤리적 대상의 확대를<sup>17)</sup> 추구한다. 이를 토대로 반생명적 반생태적인 근대정치와 이윤과 부의 생산을 극대화하는 신자유주의 지구화라는 주류담론에 저항하는 실천담론을 개진한 최성각 소설의 문학적 의미와 계몽적인 실천담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사회적 약자의 고통과 타자의 목소리

지행합일(知行合一)의 환경운동가 최성각의 문학은 프로타고라스가 “모든 사물의 척도”라고 공식화하였고, 레오나르도 다 빈치가 “비트루비

13) 'ought to be', 'ought to do'와 '(u)topia'의 합성어로, 인류가 마땅히 도달해야할 가치들이 실현되는 당위적 요청사회, 전지구적 협력사회의 모델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조영식이 주창하였다. - 안승범, 『SF 포스트휴먼 오토피아』, 문학수첩, 2018, 17쪽.

14) 생태학 ecological과 유토피아 utopia가 합친 말로, 생태적 이상향 ecotopia을 의미한다.

15) 안승범, 앞의 책, 75쪽.

16) 몸문화연구소, 『인류세와 에코바디』, 필로소픽, 2019, 22쪽.

17) 이마미치 도모노부, 정명환 역, 『에코에티카』, 기과당, 2013, 13쪽, 31쪽.

우스적 인간(Vitruvian Man)으로 표상화한 고전적 이상인 ‘인간(Man)’의 타자인 사회적 약자들을 응시한다. 작가는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변화되고 소외된 자연, 동식물, 빈자, 제3세계인, 이주자, 노인여성, 빨치산 등 정치의 주체가 될 수 없는 타자의 고통과 슬픔에 공감한다.

『진또배기 그늘』은 목소리 없는 자들에 대한 연민과 고통을 담고 있다. 강릉단오제와 풍어제, 진또배기, 서낭당 등 로컬리티를 소재로 하는 이 소설은 용왕굿 취재를 위해 강릉을 방문한 프리랜서 사진작가가 남대천 건너편 솔밭에 있는 진또배기 그늘 아래서 예닐곱 명의 할머니들이 수다를 떨고 있는 장면을 목격한다. 며느리가 만두에 쥐약을 넣어 시모를 죽이려고 하고 큰아들이 재산분배로 어머니를 때리거나 제주도여행을 막으려 옷을 찢는 등 늙은 노모에게 행패를 부리는 불효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기이하게 여겨 재방문하지만 흔적도 없이 사라져 환영이었음을 알게 된다. 모든 전승이 단절된 곳에서는 상상의 자유로운 유희나 억압된 것의 귀환이 허용되는 유행의 장소<sup>18)</sup>로서 이 지역에 소환되고 있다.

울곡의 어머니 신사임당의 현모양처상을 모델로 하는 강릉지역에서 여성들은 구조적으로 봉사하는 존재로, 대문자 ‘인간’의 타자로, 경멸적 차이로, 가치가 더 적은 존재로 간주<sup>19)</sup>된다. 자식에게 부당하고 패륜적인 대접을 받아도 말할 수 없는 그녀들은 삼중지도라는 가부장적 유교 문화의 슬프고 비참한 타자였다. 늙고 가난한 노파들의 한이 유행으로 나타나 바닷바람소리, 조개껍질소리, 모래소리로 전달하는 초현실적이고 주술적인 제의장면을 함영호는 목도한다. 그리고 짓다만 건물지하실에서 할머니들의 시체가 발견되었다는 복덕방 할아버지의 얘기를 듣는다. 레비나스 철학에서 죽음, 시간, 신, 여성 은유로 표상되고 묘사되는<sup>20)</sup> 타자는 낯섦과 타자성을 지닌 귀신, 망령, 영혼으로 귀환하며, 보수적이고

18) 알라이다 아스만, 변학수 채연숙 역, 『기억의 공간』, 그린비, 2011, 24쪽.

19) 이경란, 앞의 책, 53쪽.

20) 김애령, 『여성, 타자의 은유』, 그린비, 2012, 58쪽.

유교적인 향촌공동체에서 침묵당한 얘기들이 자연의 소리로 발화되고 있다.

전통사회에서 연약하고 무능하며 존재감을 확인받지 못하는 노인여성들은 늙어서도 아들, 며느리에게 갖은 구박을 받으며 살아야 했다. 억울하고 한 많은 사연으로 죽어간 할머니들은 마을 곳곳에 자신들의 상처를 스스로 위무하는 제의의 흔적을 남긴다. 바다와 고개, 산, 호수 등 대자연과 밀착되어 있는 강릉지역엔 산신, 해신, 조상신에게 마을의 안녕과 풍어, 풍년을 기원하는 굿이나 산신제가 많았으며, 영적이고 신성한 기운이 남아있다. 가문이나 핏줄에 대한 집착이 강하고 집성촌, 계모임이 많은 지역에서 여성들의 지위는 낮고 발언권이 없었다. 가부장적 공모성(제국주의적 지구화)에 의해 생산된 공간 즉 국가를 점유하는 자들의 말하기의 행위를 읽을 수 없게 하는<sup>21)</sup> 서발턴 여성은 죽어서 조개 껍데기를 서로 비비는 재갈재갈 하는 말소리, 까르르 하는 웃음소리로 가시화된다. 작가는 고향의 로컬리티를 소재로 역사, 정치, 문화에서 배제된 ‘가난’ ‘여성’ ‘노인’ ‘원주민’이라는 정치, 문화, 역사의 타자의 목소리를 드러낸다.

『밤의 짜이 왕, 예스비 구렁』, 『독방에 감금되었던 히말라야 여인』에선 근대와 자본에 밀린 이주자, 아시아 주민의 궁핍하고 비참한 현실을 조망한다. 『밤의 짜이 왕, 예스비 구렁』은 새만금 갯벌 싸움에 지쳐 급작스레 배낭을 꾸린 ‘나’의 नेपाल 여행기이다. 포카라의 호텔에 머물며, 나는 야간 경비원인 예스비 구렁에 관심을 갖는다. “코가 얹어놓은 삼처럼 뭉그러지고 작은 눈에 턱이 메기처럼 널찍한” 그는 “검은 실루엣으로 한 동안 정물처럼” 혹은 “검은 석고상처럼 말없이 앉아 있는” 모습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쓴다. 일을 할 때는 “야간전투 중인 병사를 떠올릴 만큼 민첩”하며 “공손하게 짜이를 따르고” “허리를 구부

21) 가야트리 차크라보르티 스피박 외, 태혜숙 역,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 그린비, 2013, 15쪽.

려 달려오는 그의 몸짓”은 한없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며 비굴하기까지 하다. 원시적이고 동물적인 반응을 보이며 외부의 위협에 대해 본능적으로 움츠리는 산주검(undead)같은 극한 상황의 생존방식은 공동체에서 추방된 자의 삶의 형태<sup>22)</sup>이다. 심부름을 기다릴 때는 ‘정물화’나 ‘석고상’처럼 죽은 척하고, 부름을 받을 때는 ‘고양이’처럼 재빨리 눈치 보며 움직이는 야간 경비원은 자유의 권리, 활동의 권리마저 포기하는 인간조건 속에 놓인 별거벗은 생명<sup>23)</sup> 혹은 아시아적 신체<sup>24)</sup>이다.

조롱하는 듯한 타자성이 내포된 호텔에서 지어준 ‘YES BE’로 불리는 경비원은 궁핍한 가족, 못생긴 외모, 낮은 계급의 직업군 등 무엇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빈자이다. 3만원의 월급으로 아내와 두 아들의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극빈층 서민인 예스비 구룡은 손님이 시키면 예, 하고 답한 후 그 일을 실행하고 언제나 같은 자리에 앉아 있다. 나는 연약하고 무력하며 보잘 것 없는 타인의 얼굴로 현현해 윤리적 명령을 내리는 고통 받는 타자를 맞이한다. 낮에는 주인 눈치를 보느라 뺨뺨한 눈인사만 하지만 밤에는 따끈한 짜이를 대접하는 그에게 나는 “밤의 왕”이라고 칭송해 준다. 네팔에 와서도 영향력이 큰 언론 사주(社主)를 이르는 속어인 “밤의 대통령”을 따서 별명을 지어주는 난 여전히 환경훼손, 언론과 정계와의 유착, 신문 사주에 대한 한국에서의 일들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새만금 싸움에 깊숙이 개입한 실상사의 한 스님은 ‘지구의날 2001’ 불

22) 이미림, 『2000년대 다문화소설에 나타난 이주노동자의 재현 양상』, 『우리문학연구』 제35집, 우리문학회, 2012, 325쪽.

23) 호모 사케르 혹은 별거벗은 생명은 아감벤의 용어로 난민, 수용자, 인간 모르모트와 같이 쫓겨난, 추방된, 터부시되는 위험스러운 자, 속세영역에서 배제된 자를 말한다. -조르조 아감벤, 박진우 역, 『호모 사케르』, 새물결, 2008, 180쪽.

24) 제일조선인 작가 양석일의 용어로, 소외되고 고통받는 아시아 민중들의 삶을 지칭한다. - 양석일, 김응교 역, 『삼십육만 원의 아시아적 신체』, 『어둠의 아이들』, 문학동네, 2010, 97쪽.

참 제안이 좌절되자 흐느껴 우는 나에게 히말라야 깊숙이 들어가 많이 고민하다가 돌아오라고 말했다. 스님에게 그 사실을 알리면서 나는 왜 그렇게 눈물이 쏟아졌는지 모른다. 환경 단체 대표자라는 이들이 작년에 했던 행사니까 올해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스님!……이런 자들이 깃벌을 살리겠다는 것을 전 믿을 수 없습니다. 스님이 단식을 하고 계신 바로 그 안마당 구석방에서 제 제안이 묵살된 것이지요……. 나는 마치 육친에게 고자질하듯 흐느껴 울면서 회의 결과를 스님에게 말했다. 예스비 구룡은 공처럼 생겼지만 늘 도마뱀처럼 미끄러지듯 걸어서 여간 희극적이지 않았다. 소리를 내고 걸으면 안 된다는 것도 호텔에서 그에게 부과한 지침 중 하나인 것 같았다.<sup>25)</sup>

환경운동의 갈등과 불화를 뒤로 하고 네팔에 온 나는 ‘하찮은 팀’을 주자 ‘용승한 대접’을 하는 43세의 늙어보이는 예스비 구룡과 의형제가 된다. 고통 속에 있는 타자도 무언가를 주는 동등성을 전제로 하는 우정은 단순한 연민과 진정한 공감을 가르며, 좋은 삶이란 자기가 존중되고 타자가 배려되며 각자가 정의롭게 대우받는 삶<sup>26)</sup>이라는 리코르의 언설을 실천한다.

남의 나라에서 눈치 보지 않고 요란한 팝송을 듣는 백인 여행자에게 공간을 내어주고, 자신의 나라에서 이방인이 되는 예스비 구룡의 처지를 통해 성스러운 히말라야 네팔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자본의 위력과 ‘대문자 인간인 백인 남성(Man)의 권리를 드러낸다. 나는 치열한 한국정치와 환경문제를 피해 네팔까지 왔지만 이곳에서조차 자본의 횡포와 인종 차별, 계급의 경계가 뚜렷한 현실을 예스비 구룡의 일상에서 깨닫는다. 가장 성스러운 공간이자 반문명, 비자본의 자연공간인 히말라야산 아래 마을 포카라에서조차 돈과 백인, 서양문화가 지배함으로써 전지구적 자본주의 질서가 재배치되고 이에 종속되면서 자본의 영역을 벗어나는 영역이란 없으며 오염되지 않은 설산에서조차 신의 위치에 돈이 대체된

25) 최성각, 『밤의 짜이 왕, 예스비 구룡』, 『쫓기는 새』, 실천문학사, 2013, 31-32쪽.

26) 강영안 외, 『레비나스철학의 맥락들』, 그린비, 2017, 194-195쪽.

셈<sup>27)</sup>이다. 자본과 권력의 지구 지배하 팝송 같은 백인문화가 깊이 침투된 네팔에서 원주민과 여행자의 위치가 전도되고 있다. 이름에서조차 순종과 굴종이 내포된 가난한 제3세계인의 모멸스럽고 비인간적인 삶을 작가는 예리하게 포착한다.

엽편소설인 「독방에 감금되었던 히말라야 여인」은 네팔 출신 이주여성 노동자 찬드라가 정신병자로 6년 동안 감금된 실제 사건을 소재로 한다. 라면값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로 서울 동부경찰서, 청량리정신병원, 시립부녀보호소, 용인 정신병원까지 6년 4개월의 세월을 간혀있었던 찬드라는 서툰 한국말로 네팔인이라고 말했지만 헛소리하는 정신질환자 한국인으로 인식되어 1종 행려병자, 생활보호대상자로 낙인 찍힌다.

이 사건이 '내'게 깊은 울림으로 다가오는 것은 경제지상주의에 오염된 한국과 달리 누구나 형제처럼 대하는 히말라야의 라디카, 구룽족, 티베탄들에게서 인간애를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찬드라'에서 '선미야'에서 또다시 '찬드라 꾸미리 구룽'의 이름을 되찾기까지 고통과 절망을 체험한 그녀에게 나는 한국인들을 대신해 참회와 위로를 보낸다. 영어권의 백인 남자였다면 당하지 않았을 인종주의와 관료주의의 횡포에 희생당한 그녀는 끔찍한 이주체험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탓할 뿐이다. 작가는 남루하고 가난하지만 '살아있다는 행복감이 넘치는 부드러운 미소와 이방인에 대한 환대의 능력을 잃지 않고 있는 히말라야 산중 사람들의'<sup>28)</sup> 기품과 의연함을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

외국인을 자국민으로 오해하는 소통부족으로 남루하고 어눌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반다문화적 인권유린적 태도는 착하고 순박하며 남탓을 하지 않는 찬드라를 고통과 공포의 6년을 보내게 했다. 자연, 여성, 사회적 약자를 타자화시키는 한국사회에 절망하는 주인공은 무욕과 선행의

27) 이미림, 『21세기 한국소설의 다문화와 이방인들』, 푸른사상, 2014, 59쪽.

28) 최성각, 「히말라야 산사람들에게 배운다」, 『달려라 냇물아』, 녹색평론사, 2007, 156쪽.

설산을 지닌 네팔을 지향하며 자연오염, 환경훼손, 인권유린, 경제만능적 현실을 비판한다. 최성각은 상처받은 ‘이웃’에 대한 참회의 구체적 실천으로서 대국민 모금운동을 벌일 것을 제안하며, 한국정부와 한국인의 무례한 만행에 대해 찬드라와 마을사람들에게 정중하게 사과<sup>29)</sup>한다. 그녀는 레비나스의 무한 책임과 데리다의 절대적인 환대를 요구하는 타자이기 때문이다. 빈자의 나라 출신이자 여성이며 이주자이고 아시아인인 찬드라에게 가한 횡포와 폭력은 자연에 가한 훼손과 파괴와 다르지 않으며, 이 사건은 영화<sup>30)</sup>로도 만들어졌다. 찬드라 사건은 경제 위기감과 신자유주의의 확산으로 평등주의가 퇴색되고 무한경쟁만 남은 경제적 불안 상황에서 난민, 이주민, 유색인, 장애인, 성소수자,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가 투사<sup>31)</sup>되었기 때문에 발생하였다.

『부용산』의 산삼심기 행사의 일원이자 32살의 한의대생인 은미는 과일노점상을 하는 어머니가 집에 오면 매일밤 뽕짜를 불러주며 위로를 했다고 한다. 모임에서 그녀가 애절하게 부른 ‘부용산’이 사상 내용의 가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금지곡이 된 이유와 그 기원이 목포설, 별교설, 제망매가설이라는 회원들의 대화가 오간다. 연희전문 국문학과를 다니던 문학청년으로 순창이 고향인 은미 아버지는 해방후 좌익계 전국문학 예술총동맹 순창지부 서기장직을 맡으면서 빨치산 활동을 한다. 1952년 토벌대에 잡힌 후 사형선고를 받은 그는 전향서를 제출하고 35살에 가출옥해서 빈농의 딸과 결혼해 은미를 낳는다. 시집 한 권을 남기고 과로와 지병으로 사망한 그는 국가공동체의 희생양인 빨치산, 빨갱이라는 낯설고 이질적인 타자였다.

29) 최성각, 『네팔 여성 찬드라에게 사죄해야 하지 않겠는가』, 위의 책, 200-202쪽.

30) 2003년 박찬욱 감독의 <민거나 말거나 찬드라의 경우> 라는 28분 정도의 옴니버스 영화로, 그녀가 만났던 경찰관, 정신과 의사, 간호사 등의 사소한 실수로 끔찍하고 폭력적인 일을 당하게 되는 이주여성 노동자의 모습을 통해 타문화에 대한 무지와 자문화중심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반다문화 태도를 감독은 찬드라의 시선을 통해 연출하였다.

31) 박찬효, 『한국의 가족과 여성혐오, 1950~2020』, 책과함께, 2020, 23쪽.

“그렇다고 해도 그렇지, 빨치산들이 불렀다고 해서 입에서 절로 나오는 노렐 못 부르게 해? 차라리 숨을 못 쉬게 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 빨치산들이 앉았던 소나무 그늘에 앉거나 빨치산들이 쳐다보던 구름도 보면 안 된다니깐. 그 사람들이 바라보던 노을도 물론이고. 그게 다 죄가 된다니까…….” 내가 빈정거렸다. “그런 시절이 있었다 손 치고, 어디 한번 불러봐라. 되게 궁금하다.” “아직도 그런 시절 아닌가 모르겠네. 그 나저나 김선배만큼 난 못 부른다. 나중에 부르자구.” 경수가 뒤로 뺐다. 이 땅의 전라도는 그토록 길고도 어처구니없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과하는 동안에 그런 은밀한 노래 한 가락을 가슴속 깊이 내장하고, 그 노래로 서로를 부축하고 위로하고, 더러는 깊은 울화를 삭이고 있었구나. 뜬금없이 그런, 다소 신과조의 고즈넉한 생각이 들자 나는 듣고 있던 종이잔의 소주를 얼른 목구멍 깊숙이 털어넣었다.<sup>32)</sup>

한국사회의 사상적 생태적 자본주의적 부조리와 모순을 비판하는 작가는 숨겨진 역사의 존재증명을 확인받지 못하는 빨치산과 남도땅의 상처를 복원한다. 남부군 당시 동상과 열병으로 반주검 상태가 되고, 혁명과 열정이 부족하다고 자아비판을 강요당한 은미 아버지는 분단국가이자 반공국가에서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였다. 또한 시인과 혁명가라는 경계인의 위치에서 북이 버리고 남이 저주한 빨치산으로서 생을 마감한다. 연꽃을 의미하는 부용산의 애잔하고 처연한 아름다움은 은미 가족의 슬픔과 한을, 더 나아가 우리 민족의 비극적인 현실을 대변한다. 지리산 자락을 헤매는 빨치산의 영혼은 가난하고 신산한 은미 모녀의 삶에 새겨진 흔적과 부용산 노래를 통해 한국근대사의 가장 아프고 처절한 고통과 한이 현재진행중임을 말해 준다.

당하는 자의 편에 서야 한다고 주창하는 최성각 소설은 사회적 약자인 타자에 시선이 머문다. 『진또배기 그늘』의 엽기적인 유령 할머니들, 『밤의 짜이 왕 예스비 구렁』의 아시아인이자 극빈층인 호텔경비원, 『독방에 감금되었던 히말라야 여인』의 이주여성 노동자, 『부용산』의 빨치산

32) 최성각, 『부용산』, 『부용산』, 숲, 1998, 20-21쪽.

인 은미 아버지는 ‘유대인, 여성, 동성애자, 불가촉천민, 하층계급사람들’로 모두 육신의 오물로 더럽혀진 존재이자 혐오와 두려움의 대상으로 상상<sup>33)</sup>되었다. 햇빛은 이웃에게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제언하는 레비나스의 타자의 철학에 기반한 작가는 사회에서 배제되고 소외된 작중인물을 통해 우리 사회의 약육강식과 경제만능주의, 자본의 위력을 고발하고 이를 추동하는 국가와 정부정책에 대해 비판한다. 공동체 내부의 바깥에 머문 비가시적이고 불가역적인 유령, 괴물, 여성의 모습으로 ‘주체에 의해 전유되고 재현되고 대리되어온 타자’<sup>34)</sup>이자 ‘동물적 생물학적 생명을 지닌 생명정치적 신체’<sup>35)</sup>의 편에 서는 작가는 자연과 동식물뿐만 아니라 돌, 흙, 강 등의 무기체에까지 이르는 극단의 타자의식을 지니고 있다. 인간이 도구나 수단으로 대상화하거나 성화하는 객체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자세를 요구함으로써 21세기 포스트휴먼 시대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단순한 연민이나 동정의 차원을 넘어 우정과 ‘타자되기’라는 공감과 동일시의 관점에서, ‘두려움과 혐오가 지배하는 현실이 사랑과 포용적 연대로 극복될 수 있다고’<sup>36)</sup> 말하고 있다.

### 3. 자연과 인간과의 공존 및 생태의식

작가이기 때문에 환경운동가가 되었다는 최성각은 평생 환경운동을 실천하였다. ‘녹색성장’이라는 모순된 단어조합에 깃들인 반생태적이고 자본주의적인 국가정책<sup>37)</sup>에 반발하는 작가는 신자유주의의 세계지배 속

33) 마사 누스바움, 조계원 역, 『혐오와 수치심』, 민음사, 2015, 201쪽.

34) 김애령, 앞의 책, 6쪽.

35) 조르조 아감벤, 박진우 역, 『호모 사케르』, 새물결, 2008, 25쪽.

36) 마사 누스바움, 임현경 역, 『타인에 대한 연민』, 알에이치코리아, 2020, 9쪽.

37) 작가는 그린벨트를 해제한 김대중 대통령, 새만금을 메운 노무현 대통령, 4대강을 죽인 이명박 대통령 등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정부의 반환경정책을 모두 비판한다. 특히 자연의 물길을 시멘트로 덮어 인공수로로 만든 청계천 복

에서 또 하나의 식민지 주민으로 전락한 민중도 사회적 약자이지만 오늘날 말없이 능욕을 당하는 대상은 ‘자연’이고, 지금보다 풍요롭게 살아야 한다고 부추기는 정치 권력자와 자본 권력자의 주류상식<sup>38)</sup>에 반하는 삶을 추구한다. 근대자본주의, 휴머니즘이 지닌 자본중심, 인간중심의 탐욕과 한없는 욕망이 갖든 주류담론에 대응하는 최성각 문학의 핵심은 생태주의이다. 그는 지구의 압도적 지배종으로 살아가는 인류의 나르시시즘적인 자기인식과 내재적 능력을 보완해주는 수단을 도구화할 줄 하는 호모 사피엔스인<sup>39)</sup> 인간에 대한 성찰을 요구한다.

『진또배기 그늘』의 배경 P시는 작가의 고향인 강릉시이다. 다른 지역에 비해 자연친화적인 중소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산업화로 변질되었고 끈적한 이물질이 달라붙는 똥물로 바뀌어버린 남대천은 어린 시절 해수욕을 했던 하천이 더 이상 아니다. 강원도 동쪽 끝에 위치한 청정한 고향마을의 작은 하천조차도 오염되었고 보를 막아 물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차단할 때 발생하는 수질에 대한 심각한 결과는 인간중심의 삶의 편리와 풍요로움을 위해 지속되는 환경정책에서 비롯된다.

수질오염 문제를 구체화한 『약사여래는 오지 않는다』의 그는 중금속으로 축적된 인간의 육신을 ‘죽음을 향해 달리는 불행 덩어리’나 ‘태어나지 않았으면 딱 좋았을 회한의 덩어리’로 여긴다. 핵발전소에서 일한 사람의 아내의 무너져 유산, 교원노조의 단식농성, 철거노점상의 항거, 안기부의 잔혹상, 유아살해, 성폭행, 아이를 유괴해 개소주집에 넘기는 괴소문, 국가보안법으로 표상되는 한국사회를 그는 불난집, 화택(火宅)으로 규정한다. 공장폐수가 한강에 유입되는 세계 최대의 공해실험장인 곳에서 마들평 아파트 공사는 계속 진행되며 간첩신고 3천만 원이라는 반공표지판이 보이는 우리 사회는 드라마틱하고 충격적이며 극단으로 흐

원, 4대강 살리기를 주창한 이명박 대통령을 적대적인 대상으로 본다.- 최성각,

『나는 오늘도 책을 읽었다』, 동녘, 2010, 143쪽, 150쪽.

38) 최성각, 『달려라 냇물아』, 앞의 책, 6쪽.

39) 안승범, 앞의 책, 58쪽.

르는 세상이다. 토건과 반공, 환경오염으로 점철된 1990년대 한국은 생경한 타자혐오의 공간이다.

만성 피로와 식은땀의 증세를 보인 그는 맑은 물을 먹으라는 진단을 받고 유락산을 방문한다. 쌀 씻는 청년과 이를 질타하는 노인이 싸우는 살풍경한 약수터엔 긴 줄이 서서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고 적대하는 분위기로 가득하다. 엽기적이고 이기적이며 인간중심적인 서울의 일상은 물이 오염되어 썩어가고, 계급에 따라 건강이 보장되며, 아파트 건축을 통한 토건카르텔의 탐욕과, 몽둥이로 개를 패 산 채로 털을 미는 생명의 위기로 가득하다. 자연을 마음대로 착취하고 개발한 권리를 갖고 있으며, 자연에 대한 인간의 우월권을 준<sup>40)</sup> 인간 때문에 자연은 복원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고 고통을 당한다. 강원도 바닷가가 고향인 그는 살풍경한 도시를 산책자 혹은 이방인의 시선으로 관찰하며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그린다.

산 정상 내리막길에 있는 절의 약사전 벽면엔 앓아 누운 여인의 손목과 과일나무가 가느다란 흰실로 연결된 불화가 그려져 있다. 이 그림은 신의 거주처이자 소우주를 상징하며 제 스스로는 말라죽으면서 회춘, 장수, 불사를 주는 나무와 인간과의 조화를 의미한다. 질병과 재난을 면하게 해주고 의식을 충족시켜주며 외적의 침입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약사전 안의 약사여래를 보지 못하고 상상한 그는 내설악 약수터도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효염으로 밤새 치성을 드리는 주술적이고 영험한 인습이 남아있음을 기억한다.

재방문한 광덕역수터 옆에서 ‘식수부적합’이라고 붙어있는 표지판과 개잡는 사내들을 발견하고 절망적 심정에 놓인 그는 실이 끊어져 바다에 떨어져 있고 여인의 손목은 힘없이 아래로 처져있는 약사전 불화를 목도한다. 인간의 이기와 식욕만족과 쾌락을 위해 나무와 물과 동물을 해치고 파괴하는 일상을 냉소적으로 묘사한 이 소설은 인간의 무한욕망

40) 동국대 생태환경연구센터 편, 『생명의 이해』, 동국대출판부, 2011, 297쪽.

을 성찰한다. 화업의 연기론과 불이불이론은 지구의 자연과 생명은 서로가 서로를 형성하고 살게 하는 조건이자 인드라마<sup>41)</sup>처럼 깊은 연관 관계를 맺고 있는 부분이자 전체를 담고 있고 전체와 관련을 맺고 있는 하나 곧 에코시스템으로 우주 삼라만상 일체가 인드라마 구슬 속에 담겨<sup>42)</sup> 있다고 본다. 나무와 여인의 단절은 인류세의 도래와 에코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한다.

이 소설은 상생의 사유 체계인 불교 연기론과 생태학적 패러다임이 내재된 불화를 통해 자연환경을 훼손하여 균형을 깨는 살생을 경고한다. 최성각은 이원론적인 서구적 자연관을 갖게 됨으로써 자연은 정복과 파괴의 대상이 되었고, 이로 인해 인간과 나무의 끈이 끊어진 불화의 변모를 환상적이고 예술적으로 묘사한다. 미즈와 시바가 강조하는 “세계의 재주술화”는 생명을 유지하는 영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살아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존중과 잔인하게 접속이 끊어졌던 것들의 치유를 요청<sup>43)</sup>한다. 그림 속 자연과 증생의 연결은 타자를 통해 나를 규정하는 원리인 연(緣)의 관계가 아닌, 자연을 정복하고 지배하는 서구의 이분법적 사유체계와 자본주의, ‘모든 대상물을 상품생산의 원재료로만 생각하고 최대한의 이용과 착취만을 생각하는 과학기술’<sup>44)</sup>을 특징으로 하는 현실 조건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강을 위한 미사』는 영월댐 백지화를 위한 미사 봉헌 형식으로 구성되며, 『약사여래는 오지 않는다』가 불교의 생명론과 동양의 유기체적 생명에 근거했다면 이 소설은 천주교의 생명사상에 기초한다. 강이 흐르기를 원하는 전국 사제들과 신자들이 시골마을 성당에서 행하는 미사기도

41) 산스크리트어로 인드라알라 indrjala로 법과 질서의 수호신으로 제석으로 받드는 인드라의 그물을 뜻한다. 이는 끊임없이 서로 연결되어 온 세상으로 퍼지는 법의 세계를 의미한다.

42) 동국대 생태환경연구센터 편, 앞의 책, 209쪽.

43) 이경란, 앞의 책, 32쪽.

44) 동국대 생태환경연구센터 편, 앞의 책, 46쪽.

는 2000년 대회년이 인간과 신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은총의 해가 되게 해달라고 염원하는 내용을 담는다. 용수공급, 홍수피해방지, 지역개발을 위해 수자원공사와 건설교통부, 정부당국에서 강행하려는 영월댐 공사를 반대하는 이유는 자연환경 생태계 파괴와 안정성의 문제 때문이라고 신부는 강변한다.

어떤 이들은 환경문제라고 하면, 환경이 밥 먹여주냐, 이렇게 말합니다. 또 환경이 중요하냐, 생존권이 중요하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이렇게 답합니다. 환경이 밥을 먹게 해줍니다. 또한 환경도 중요하고 생존권도 중요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환경을 죽여서 내가 사는 상극의 시대가 아니라, 서로가 살기 위해서 환경을 살려야 하는 상생의 시대를 살아야 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환경이 파괴되고 생태계가 파괴되면 먹을거리도 없어집니다. 먹을거리가 없어지는 곳에서는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환경파괴는 동식물 생태계의 파괴를 가져오고, 동식물 생태계의 파괴는 결국 인간의 생존권 파괴를 가져오게 됩니다.<sup>45)</sup>

환경을 죽여서 내가 사는 상극의 시대가 아니라, 서로가 살기 위해서 환경을 살려야 하는 상생의 시대를 살아야 함을 깨달아야 한다는 신부의 강론은 포스트휴먼 시대가 지향해야할 가치로서 최성각의 생각을 대변한다. 자연과 환경 파괴는 인간 생명 파괴로 이어지므로 모두가 멸망하는 환경정책은 변화되어야 하며 하느님은 모든 피조물들이 서로 함께 살도록 돕고 살도록 세상을 창조했다고 한다. ‘~하소서’, ‘기도합시다’ 등 기원의 어미구사와 성가 가사를 중간중간에 배치하고 공동성명서 발표 이후 신부님들과 그 뒤를 따른 촛불 든 사람들의 시대를 향한 침묵 행진을 하며 생명의 소중함과 자연과의 평화를 기원한다.

인간이 자연세계와 별개이며 그보다 우월하다고 믿는 인간중심주의, 자연의 모든 것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생각, 무제한의 경제성장 추구

45) 최성각, 『강을 위한 미사』, 『꽃기는 새』, 실천문화사, 2013, 73쪽.

가 자연훼손의 원인<sup>46)</sup>이므로 강을 위한 미사제의를 통해 강의 권리를 찾고자 한다. 작가는 정선, 영월, 평창 등 세 지역에 걸쳐 있는 동강을 가둠으로써 마을이 수몰될 위험과 자연을 인위적으로 바꾸는 행위를 비난하며, 인간과 자연과 우주를 관계망 속에서 이해했던 인디언이나 마오리적 세계관을 주창한다.

『동강은 황새여울을 안고 흐른다』에서는 동강 주변인 영월, 미탄, 강릉, 평창, 정선의 장렬, 조양강, 비봉산, 남원주, 주천, 가리왕산 등 주요 지명의 역사적 유래와 탄생배경을 설명하며 한 지역의 댐건설 문제가 아닌 강원도 전체의 문제임을 상정한다. 잡지 편집위원인 최 주간<sup>47)</sup>과의 대화와 승근 형과의 동강 주변 마을 방문에서 땅과 바다의 훼손과 환경오염을 고발하는 이 소설은 인간중심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제 의식을 다양한 상징적 소재로 작품 곳곳에 배치하며 작가의 생태의식, 녹색정신이 강렬하게 제시되고 있다.

소설 서두에는 장자의 글을 인용한다. 누구나 선망하고 사랑하는 미인도 물고기나 새나 사슴에게는 그저 도망쳐야할 대상에 불과하므로 장자는 ‘누가 진정한 아름다움을 알아보는가?’라는 화두를 던진다. 올바름과 아름다움의 근거는 인간 중심으로 사유된 기준이기에 만물은 모두 평등(萬物齊同)하다는 장자의 글은 지렁이, 자전거, 강과 땅에게조차 상을 수여하는 작가의 생각을 대체한다. 누구나 생존을 위해서는 공기, 물, 거주지, 햇빛, 바람이 필요하므로 인간만이 이를 향유하거나 누릴 권리는 없다. 자연의 권리에 대한 존중은 인간이 행하는 가장 높은 타자적 자세이며, 자연중심적 다원주의, 탈인간중심주의와 유기체적 생명철학이라는

46) 데이비드 보이드, 이지원 역, 『자연의 권리』, 교유서가, 2020, 287쪽.

47) 오랫동안 문학출판사의 편집자이고 대학 시간강사나 문학학교 강의를 하며 자신의 시에만 관심을 두며 사십 대 중반을 넘어섰건만 집도 없는 친구로서 팔리지 않는 시집을 쓰고 『구토물을 먹는 아침』을 쓴다고 묘사된 최 주간은 시인 최승호로 유추할 수 있다. 이 시는 1999년 민음사에서 발간된 시집 『그로테스크』에 수록된 시이다.

주제의식을 장자의 에피소드를 통해 그린다.

동강댐 건설을 반대하는 탑골 집회의 사회자로 참여한 ‘나’는 고향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승근 형과 동강 일대를 탐방한다. 강릉에 살지만 정선 사람인 승근 형과 서울에 살지만 강릉 사람인 나는 정선의 옛이름이 잉매현(仍買縣)이고 강릉의 옛이름은 명주(溟洲)로서 행정구획 개편이 정치적 이유 때문이라는 설명과 정선아라리 가사에 나오는 삼척으로부터 소금 지러 간 곳이었던 명주권의 생활상을 이야기한다. 산삼을 심는 것을 통해 땅에 대한 사랑과 이타심의 가치를 기치로 한 농심마니 행사를 해온 나는 환경문제는 경제제일주의의 국가정책, 조작되고 왜곡된 환경영향평가, 지역주의의 이기심과 소소유자적 성격, 조직화된 외지인 투기꾼, 건설업체라는 토건카르텔 등 부정부패와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동강 상류인 정선 장물 마을에서 미탄, 평창으로 향하는 42번 국도를 지나면서 정선아라리의 질탕한 성적(性的) 가사와 정선땅을 노래한 목은 이색과 허소유의 시, ‘느리게 흐르는 강’이라는 의미의 잉매현 지명에 대해 서술한다. 울퉁불퉁한 강원도 오지가 개 어금니같다는 허소유와 동네가 맨 동굴 천지라고 했던 이색의 시를 인용하며 천혜의 땅을 표현한다. 실증자료와 통계에 근거하여 동강 유역의 시위행태를 사실적이고 다큐적으로 서술하는 이 소설은 문학적 소재의 차용과 강원지역의 유기적인 지형을 배치함으로써 미학적 장치를 놓치지 않는다.

‘청정 자연’, ‘자연의 보고’로 불리는 강원도의 댐 건설은 자연보존에 앞서 동강 하류 마을이 침수될 위험에 처한 생명의 문제이다. ‘한국의 계림(桂林)’이라는 동강의 비경(秘景)은 우리나라 최상의 녹지자연도(綠地自然度)에 갓가지 희귀 동물 서식지라는 생태학적 가치를 지녔으며 석회암 지역인지라 수몰 예상 지역인 영월, 평창, 정선 지역 일대가 물이 닿으면 쉽게 녹아버리므로 동강 인근 지대가 위험에 처해진 것이다. 마을에는 보상만 충분하면 찬성한다는 굴암리 주민의 노골적이고 적나라

한 플래카드가 걸려있다. 깊게 파인 길이나 비포장을 달리는 나와 승근 형은 인간의 편리와 속도를 위한 포장도로 때문에 동물들이 길을 잃어버려 멸종되어 가고 식물군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는 것을 상기한다.

물이 아름다워 지명이 가수리(佳水里)인 마을은 긴장감이 감도는 분위기 속에 금기와 처벌이 담긴 안내문이 있어, 댐건설을 반대하는 현지인과 대립하고 있다. 농협, 건교부, 수자원공사와 환경단체, 언론과의 대립에 보상을 위해 비싼 한약재나 화훼식물을 심어놓은 투기꾼에 이르기까지 조용하던 시골마을의 갈등과 대립은 돈과 얽혀 생계의 문제로 치달는다. 타이탄에서 내린 세 명의 남자는 방문객을 의심하면서 “댐을 못 짓게 개지랄하는 자식들이라면 내 톱으로 썰어서 동강에 확 뿌릴라 했더니만...”는 거친 말을 하고 사라진다. 무방비로 능욕과 언어폭력을 당한 상근 형과 나는 환경운동의 어려움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사태해결이 불투명하고 비관적임을 알게 된다. 이 소설엔 한국자본주의의 정신인 천민자본주의<sup>48)</sup>와 에리식톤 콤플렉스<sup>49)</sup>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강도 잠을 잔다는 거 알어?” “......” “돌아가신 삼촌이 장렬의 느리매에서 말했어. 여름밤에 강에 그물을 쳐놓고 장광에 누워 기다리다 보

48) 베버가 유대인들의 비합리적 자본주의 즉 정치나 투기에 의존하는 모험적 자본주의의 정신을 표현하고 서술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었으나 가능한 한 모든 기회와 수단을 이용해 화폐가치적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정치에의 의존 또는 기생 투기 모험 폭력 전쟁 혹은 재정적 약탈 등의 수단으로 이 자본주의는 윤리적 규범을 결여하고 배금주의로 귀결된다. - 김덕영, 『에리식톤 콤플렉스』, 길, 2019, 71쪽.

49) 돈과 물질적 부에 대한 무한한 욕망을 표현하는 개념으로, 그리스 신화 속 끝없는 허기를 느끼는 저주를 받아 결국 재산과 외동딸까지 팔아넘기고 자신의 몸까지 다 뜯어먹고 이빨만 남은 오만하고 불경스러운 부자 에리식톤에서 차용했다. 박정희(국가), 정주영(재벌), 조용기주의(개신교)가 융합된 인격체로서 에리식톤 콤플렉스를 철저히 체화하고 내면화한 이명박이 한국 자본주의의 정신이라고 저자는 설명하고 있다. - 위의 책, 72쪽, 245쪽.

면 강이 자는 걸 느낄 수 있다고 말야.” 나는 한동안 그가 한 말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동강은 정말 소리 없이, 잠자듯 흐르고 있었다. 그렇게 강을 본 적이 없다고 나는 생각했다. 동강이 다만 흐르는 강물이 아니라 숨을 쉬고 살아 있다는 것을 그때처럼 강렬하게 느껴본 적은 없었다.<sup>50)</sup>

강도 잠을 자며 숨을 쉬는 생명체이기에 ‘특정 장소의 사람들은 그곳의 지리적 특성들-강, 숲, 호수, 다른 종들-과 친밀히 연결돼 있고 그것들 모두에 대해 책임을 지는’<sup>51)</sup> 강의 권리와 법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 최초로 여성총리, 여성대법원장, 여성총독을 둔 뉴질랜드는 마오리 세계관을 수용하여 강에 법인격체의 권리가 있음을 인정했으며 2017년초에 정식으로 법제화<sup>52)</sup>했다. 인도에서 중국으로 오는 중 악취로 마을을 떠나는 사람들을 위해 육신을 벗고 바다 속 썩어가는 대충(大蟲)이라는 이 무기를 내다버린 후 돌아왔으나 육체가 사라져 누군가 두고 간 얼굴 흉측한 육체를 뒤집어쓰게 되었다는 달마 이야기는 시화호 문제와 연결되어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비유한다. 작가는 동물의 시선, 식물의 감각으로 타자의 고통을 망각하지 않겠다는 생태의식을 작품 곳곳에 발현하고 있다.

2조원의 공사비를 들인 인공호수 시화호는 죽음의 호수라고 불릴 만큼 오폐수 오염이 심각하고 갈대숲과 습지라는 지형적 특징 때문에 범인들이 유기하기 적합한 장소로 변질되었다. 수십만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악취와 구역질이 나는 호수는 바다에 방조제를 설치하여 강제로 물의 흐름을 막은 결과였다. 최 주간은 세금을 내는 우리 자신이 살인청부자, 마네킹, 절망의 병어리, 초현실적인 나라에선 늪어가는 무력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는 시인인 그는 ‘구토물

50) 최성각, 『동강은 황새여울을 안고 흐른다』, 『쫓기는 새』, 실천문화사, 2013, 270-271쪽.

51) 데이비드 보이드, 이지원 역, 앞의 책, 179쪽.

52) 위의 책, 180-181쪽.

을 먹는 아침'이라고 표현한다. 운치리, 가수리, 고성리의 플래카드와 달리 섭새, 사목리, 거운리에는 '영월댐 불안 속에 악몽 꾸는 우리 주민', '위험한 영월댐 목숨 바쳐 저지하자', '붕괴가 뻔한 영월댐! 영월 읍민 다 죽인다'라는 플래카드가 바람에 펄럭인다. 건교부의 영월댐 강행 발표에 최 주간은 황새여울이 아무리 많아도 동강은 흘러왔다고 말하며 소설은 끝이 난다. 과학과 기술은 인간을 해방하고 진보시키는 도구이기 커녕 인간적 가치를 위협하고 환경과 지속가능성에 위기를 야기<sup>53)</sup>한다.

관공서의 환경영향평가 조작과 보상을 위한 돈에 대한 집착, 공무원들의 부정부패가 동반된 동강댐 건설 문제를 다룬 「동강은 황새여울을 안고 흐른다」는 반생명적인 국가환경정책을 비판한다. 작가에게 이 세상은 물질만능, 부패, 광적인 집단 의식 따위가 먼저 떠오르는 '나쁜 시간들'이 만든 정신적 공황 상태이다. 그의 소설은 사건 중심이나 감성적인 내면심리보다는 서술자의 분노와 논평이 직접적으로 드러나기에 미학적 형식을 지적받을 수 있지만, 생태적 복원이 그만큼 절실하며 다양한 소설방식을 통해 오늘날 강조되는 종을 뛰어넘는 공유사회, 유토피아 지향이라는 주제의식을 격렬하고 곡진하게 표출한다. 생명을 이어주는 과일 나무의 줄이 끊어지고, 더 이상 달마는 시화호에 오지 않을 것이라는 비유를 통해 인간과 자연의 불통과 단절의 위기가 예술적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거위, 맞다와 무답이』는 동물에 대한 사랑과 공존의 가치, 생물다양성을 작가의 체험을 바탕으로 따뜻하고 아름답게 그린다. 동물에게 상을 드리는 환경운동을 펼치는 왕풀, 그레풀(작가 자신), 산풀, 꽃뿔 씨 등 마을사람들은 지구의 주인 노릇으로 군림하는 인간이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취급하고 제멋대로 대해서는 안된다는 생각 하에 연구소를 설립하였다. 두 마리의 거위와 사는 거위아빠 그레풀은 거위의 아름다움과 인내력, 지혜로움, 외모의 매력에 감동을 받는다. 거위가 자신

53) 이경란, 앞의 책, 39쪽.

의 등을 쪼며 놀 때의 감미로운 촉감과 기분 좋은 순간을 맞는 황홀함, 콩알만한 까만 눈과 주황색 부리와 두 발만이 허공에 떠있는 하얀 몸과 함박눈이 하나가 되어버린 아름다움, 알을 낳아주는 고마움, 2년 만에 수리부엉이의 습격으로 이별하는 슬픔 등 작은 생명체와의 추억을 간직한다. 들뢰즈의 동물 되기는 반인간중심주의 개념으로 도나 헤러웨이드 포스트휴먼과 생명 중심 평등주의를 지지하는, 인간의 중심성을 전위하는 정신을 공유<sup>54)</sup>한다. 거위와 동일시되는 주인공의 동물 되기는 주체가 결코 정복하지도 소유하지도 않고 항상 한 때, 한 그룹 또는 한 무리 안에서 단지 교차하는 공통의 생명 공간을 향상시키는 공간적 시간적 양태<sup>55)</sup>이다. 살아가는 일상을 동화적이고 환상적으로 그린 이 소설은 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로컬리티에 바탕을 둔다.

최성각의 녹색문학은 불교의 연기(緣起)와 자비의 생태학<sup>56)</sup>, 천주교의 생명사상, 도교의 유기체적 생명철학 등 종교를 넘어서는 탈인간중심주의적 세계관을 표명하며, 지구에 살고 있는 생물, 대기권, 토양, 대양까지를 포함하는 지구는 살아있는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인 가이아 이론<sup>57)</sup>의 입장에 서있다. 땅, 강, 하늘 등 자연의 섭리와 흐름을 인공적으로 역류시키는 일에 대한 분노와 저항을 지속적으로 드러내는 최성각 문학은 주류담론에 대한 대응양상으로 생태주의를 지속적으로 주창하였다.

54) 로지 브라이도티, 김은주 역, 『변신: 되기의 유물론을 향해』, 꿈꾼문고, 2020, 263쪽.

55) 위의 책, 235쪽.

56) 불교는 중생의 개념을 인간을 넘어서서 규정하는바, 생명활동과 정신작용이 다 있는 유정지물뿐만 아니라 정신활동은 없는 유정지물(초목), 모두 없는 무정지물(장벽과 와석 등)조차도 끊임없는 변화가능성 위에서 이해하며 끝내는 불성이 있어 성불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송상용 외, 『생태문제와 인문학적 상상력』, 나남출판, 1999, 176쪽.

57) 제임스 러브록, 홍유희 역, 앞의 책, 17-18쪽.

#### 4. 맺음말

작가의 사명을 ‘당하는 자의 편에 서고 이익을 얻으려는 자들의 폭력에 저항하고 진실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한 최성각은 환경운동가가 될 수밖에 없었다. 녹색문학을 특징으로 하는 그의 소설과 에세이에도 이러한 주제의식이 반영되고 있다. 포스트휴먼 시대의 최성각 소설은 젠더, 계급, 성별, 종을 뛰어넘는 평화롭고 평등한 세상을 추구한다. 특히 자연과 동식물과의 공존과 상생은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로서 따뜻하고 아름다운 에코담론, 에코시스템에 기반한 에코토피아로 이끈다. 공동체의 주체가 되지 못한 사회적 약자의 고통과 타자에 대한 연민은 여성노인, 아시아인, 빈자, 이주자, 빨치산, 동식물 등을 향하고 있다.

『진또배기 그늘』은 진또배기 그늘아래 여귀가 되어 바다소리, 모래소리, 바람소리 등 지각되지 않는 초월적인 언어적 기표로 자신의 설움과 고통을 전달하는 가부장적 사회의 타자인 여성노인에 주목한다. 『밤의 짜이 왕, 예스비 구름』은 존재감을 상실한 채 죽도록 일만 하며 비굴하고 위축된 삶을 영위하는 호텔 경비원을, 『독방에 감금되었던 히말라야 여인』은 한국에 돈 벌러 왔다가 정신병원에 갇혀 고통 받은 이주여성 노동자라는 빈국 출신의 아시아인의 삶을 그린다. 『부용산』은 문학과 혁명, 순수와 정치 사이의 경계인으로 불행한 삶을 마감한 빨치산의 이야기이다. 한국근대사의 비극적인 역사적 사건인 빨치산이란 타자적 정체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풀꽃평화연구소를 운영하며 자연과 무생물에게 풀꽃상을 수상하는 작가는 지구를 지배하는 인간의 탐욕과 자연훼손과 동물학대를 비판하며 새만금간척사업, 시화호, 동강댐과 같이 잠자고 숨을 쉬는 강과 바다 물길을 인공적으로 가두거나 역류시켜 생태계를 파괴하고 오염시키는 강의 권리와 법적 도덕적 책임을 묻는다. 『약사여래는 오지 않는다』는 수질오염을 소재로 약수터에서 벌어지는 인간의 욕망을 고발하고 자연과

사람과의 끈이 끊어짐으로써 화택이 된 현실을 상징적 예술적으로 묘사한다. 『강을 위한 미사』, 『동강은 황새여울을 안고 흐른다』에서는 영월 동강을 지켜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과정을 통해 인간이 자연과 동물에게 가한 억압과 폭력과 멸시를 반성하고 성찰한다. 『거위, 맞다와 무답이』는 두 마리의 거위와 살면서 수단이나 도구로만 여겼던 동물들의 아름다움과 지혜로움과 사랑스러움을 관찰하며 과연 인간이 동물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다.

미사제의, 자전적 소재, 에세이적 소설, 엽편소설 등 정통서사구조를 변형하는 소설형식은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규칙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최성각의 자유로운 글쓰기를 담아내기 위해서이다. 폭력과 욕망으로 치달은 20세기 근대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대항담론으로 작가는 생태의식, 젠더의식, 다문화의식 등에 기반한 타자의식을 주창한다. 작가는 힘없고 한없이 당하는 사회적 약자에 공감하고 연대하며 아름답지 못한 세상의 변혁을 꿈꾸는 에코토피아를 구축하며 에코에티카를 실천하고자 한다. 본고는 종을 넘어서는 생태주의로 돌아가야 할 절실함이 요구되는 포스트휴먼 시대에 최성각 문학의 의미를 고찰하였다.

## 참고문헌

### 1차 자료

- 최성각, 『거위, 맞다와 무답이』, 실천문학사, 2009.  
\_\_\_\_\_, 『나는 오늘도 책을 읽었다』, 동녘, 2010.  
\_\_\_\_\_, 『달려라 냇물아』, 녹색평론사, 2007.  
\_\_\_\_\_, 『모르는 사람들』, 고려원, 1990.  
\_\_\_\_\_, 『부용산』, 숲, 1998.  
\_\_\_\_\_, 『쫓기는 새』, 실천문학사, 2013.

### 논문

- 김미영, 『소설교육의 한 가능성: 생태소설을 중심으로』, 『어문연구』제33권,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5, 469-492쪽.  
김윤선, 『녹색성장시대, 새로운 글쓰기: 최성각의 생태문학을 중심으로』, 『문학과 환경』제9권, 문학과환경학회, 2010, 93-117쪽.  
박미경, 『생태위기와 문학의 대응: 최성각의 생태문학을 중심으로』,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2013, 1-58쪽.  
손민달, 『한국생태수필의 가능성과 그 양상』, 『문학과 환경』제14권, 문학과환경학회, 2015, 59-88쪽.

### 단행본

- 김덕영, 『에리식톤 콤플렉스』, 길, 2019.  
곽경숙, 『한국현대소설의 생태비평적 이해』, 역락, 2013.  
김애령, 『여성, 타자의 은유』, 그린비, 2012.  
동국대 생태환경연구센터 편, 『생명의 이해』, 동국대출판부, 2011.  
안승범, 『SF 포스트휴먼 오토피아』, 문학수첩, 2018.

- 송상용 외, 『생태문제와 인문학적 상상력』, 나남출판, 1999.
- 이경란, 『로지 브라이도티, 포스트휴먼』, 커뮤니케이션북스, 2017.
- 이지언, 『도나 해러웨이』, 커뮤니케이션북스, 2017.
- 전혜자, 『한국현대생태소설의 서사적 유형과 분석』, 새미, 2007.
- 조명래, 『지구화, 되돌아보기와 넘어서기』, 환경과생명, 2009.
- 마사 누스바움, 조계원 역, 『힘오와 수치심』, 민음사, 2015.
- 마사 누스바움, 임현경 역, 『타인에 대한 연민』, 알에이치코리아, 2020.
- 데이비드 보이드, 이지원 역, 『자연의 권리』, 교유서가, 2020.
- 로지 브라이도티, 김은주 역, 『변신: 되기의 유물론을 향해』, 꿈꾼문고, 2020.
- 로지 브라이도티, 박미선 역, 『유목적 주체』, 여이연, 2004.
- 리처드커니, 이지영 역, 『이방인, 신, 괴물』, 개마고원, 2004.
- 이마미치 도모노부, 정명환 역, 『에코에티카』, 기파랑, 2013.
- 조르조 아감벤, 박진우 역, 『호모 사케르』, 새물결, 2008.
- 제임스 러브록, 홍옥희 역, 『가이아』, 갈라파고스, 2004.
- 클라이브 해밀턴, 정서진 역, 『인류세』, 이상북스, 2018.

<Abstract>

## A Study on Consciousness of Others and Ecological Characteristics in Choi Seong-Gak's Novels

Lee, Mi-Rim\*

This study set out to investigate novels of Choi Seong-gak that had advocated a non-anthropocentric view of the world transcending species by publishing his green literary works consistently in the post-humanism era oriented toward ecologism. As he maintains that authors should take the side of those who are suffering in any cases, his literature shows sympathy and solidarity with the female elderly, migrant workers, Asian people, North Korean partisans, and animals. In his *Shadow of Jintobaegi*, old women with their otherness of “poverty,” “woman,” “grandmother,” and “native” become female ghosts in a patriarchal society and convey their resentment and sorrow with the sound of wind, wave, and sand as transcendent linguistic signifiers that are not signified, showing the sad meanings of shamanistic and miraculous life. In his *King Zai of the Night*, *Hill of Yesbi* and *A Himalayan Woman in Solitary Confinement*, Nepalese people from a poor country are subjected to violation of human rights, hatred against women, and racial discrimination and request an ethical order in the face of others. In his *Mt. Buyong*, he restores the being of others that have not had their voices through the lives of North

---

\*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Korean partisans. Reflecting his consciousness of others even for the nature, animals, plants, and inorganic matters that are more subjected to assault and pain than vulnerable human beings in society, his literature is characterized by ecologism with topics of damaged nature and environmental contamination. His novels report on the reality with in a documentary and realistic way based on real names and concrete data and statistics. *Shadow of Jinttobaegi* looks squarely on the contamination of the Namdae Stream, and *Bhaisajyaguru Is Not Coming* depicts disconnection between nature and people. *Mass for the River* and *The Dong River Flows, Embracing the Stork Rapids* make diagnosis with problems caused by unnatural environmental changes involving the Dong River being stored and flowing backward including life crisis, destruction of animal and plant ecosystems, and water contamination, raising objections to the construction of a dam on the river in Yeongwol. *The Geese Named Matda and Mudabi* shows sympathy with the warmth, beauty and consideration of animals, talking about egalitarianism. Based on ecological consciousness transcending different religions including Buddhism with its ecology of dependent origination and mercy, Catholicism with its life ideas, and Taoism with its non-anthropocentrism and organic life philosophy, Choi's literature overcomes the limitations of humanism and delivers the thematic consciousness of mutual survival for all, thus holding contemporary significance.

Key Words: Choi Seong-Gak's, Eco-literature, consciousness of others, ecologism, post-human, ecotopia, ecoethica

■ 논문접수 : 2020년 11월 30일

■ 심사완료 : 2020년 12월 14일

■ 게재확정 : 2020년 12월 15일